



KCC글라스, 자립준비청년 사회안착 지원

KCC글라스가 서울 서초구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KCC글라스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4년 Dream홀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 2번째부터)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명주 KCC글라스 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글라스



이재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이재현 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이사장(가운데)은 세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광그룹



이랜드재단-미소, '굿럭굿잡' 캠페인 전개

이랜드재단이 이랜드월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SPA 브랜드 '미소'와 함께 여성 자립준비청년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굿럭굿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랜드재단 이재욱 본부장, 티을 이지현 매니저, 티을 윤태준 대표, 이트아이빌 이소영 원장, 비타민엔젤스 홍석진 과장, 이랜드 주얼리 김종화 과장, 미소 공효정 팀장, 스킨스터디 선유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유진기업,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진그룹 모기업 유진기업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 교육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최근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진기업의 공정 및 품질관리 부문 담당 임직원들은 이틀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지식 및 실무능력 관련 교육을 받았다. /유진기업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 모집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를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은 인원으로 공동생활 가정이나 쉼터 출신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위한 '특별한 축구교실' 선사

포항스틸러스와 축구교실 기획 김준호 선수 등 일일코치 변신

포스코퓨처엠이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미래세대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18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축구교실에서 포항스틸러스 선수들이 직접 일일 코치로 변신했다. 선수들은 미니게임 중인 어린이들에게 패스와 드리블, 볼트래킹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포항스틸러스 초청으로 포항스틸야드에 방문해 라커룸 미디어룸 등을 둘러봤다. 실제로 선수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경기장에 입장해 미니게임을 펼치는 등 특별한 체험시간을 가졌다.

축구교실에 참여한 포항스틸러스



포항스틸러스 선수들이 17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직접 일일 코치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드리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김준호 선수는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스틸러스와 포항 지역 아동센터 8곳 어린이 총 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첫 수

업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매월 2회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기초체력을 기르고 협동심을 함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축구교실을 기획했다.

포항스틸러스 소속 코치진은 축구 기본기 교육 뿐만 아니라 체력증

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축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 대관, 유니폼, 축구용품, 차량, 간식 등을 지원한다.

이태희 포스코퓨처엠 기업시민사무국장은 "어린이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포스코퓨처엠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푸른꿈 환경학교'는 2013년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후 누적 1100여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수료했다. 청소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트랜시스,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iF 어워드' 본상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 '2관왕'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인정받아

현대트랜시스가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히는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 2개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트랜시스는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에서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UAM) 캐빈 콘셉트,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시트도 2관왕을 달성하며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 캐빈 콘셉트는 현대트랜시스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최초로 미래 모빌리티 UAM의 공간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는 플립-오버시트(앞·뒤보기 전환이 가능한 시트), 슬립형 시트 디자인



현대트랜시스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한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 캐빈 콘셉트'(위)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시트'

인(노출형 프레임으로 가볍고 텐션 있는 소재 제안), 프라이버시 스크린 제안(빛이 투과되는 소재 활용), 러기지 공간 극대화(벤치형 쿠션

디자인으로 하단 적재공간 최적화) 등 제한된 UAM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면서 승객의 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았다.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시트는 '재생 모빌리티로의 전환(Shift to Regenerative Mobility)'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2023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에 이은 국제 디자인 대회 두번째 수상이다.

서승우현대트랜시스시트본부장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 실내공간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KGC인삼공사 '흥이장군 댄스대회' 개최

KGC인삼공사는 '흥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흥이장군 댄스대회는 2015~2021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흥이장군 CM송 혹은 K-팝 노래에 맞춰 나만의 에너지를 표현한 30초~1분 이내의 춤추는 영상을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2명 100만원, 최우수상 4명 50만원 등 총 12명에게 580만원 상당의 흥이장군 장학금을 전달하고, 정관장 매장 추천을 통해 접수한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흥이장군상과 흥이장군 제품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한국문화재단 ◇본부장급 △무형유산진흥본부장 조진영
- ◆국토교통부 ◇국장급 신규임용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몽골대사 최진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장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장 전봉환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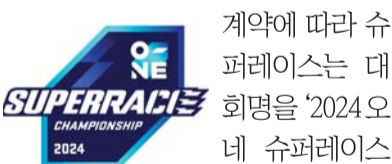
- ▲장기숙씨 별세, 김준(SK이노베이션 부회장)·현중(삼성전자 상무)·정연씨모친상, 이소영(호서대 교수), 안지선(글렌우드홀딩스 상무) 시모상 = 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도 양주시 운경공원. 02-3410-3151
- ▲김충언씨 별세, 이종성(부국증권 기업금융본부장)씨 모친상 = 18일, 경남 진주시 제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55-750-7100
- ▲하옥자(향년 74세)씨 별세, 김인(경향신문 노조위원장)·김인경씨 모친상, 서강원씨 장모상 = 17일 낮 12시30분, 서울직심자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9일 낮 12시. 02-2002-8444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

'오네' 브랜드 인지도 강화

CJ대한통운 통합 배송브랜드 '오네(O-NE)'가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와 손잡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 슈퍼레이스와 2024년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슈퍼레이스는 대회를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바꾸고 8년만에 대회 엠블럼(사진)도 교체한다.

배송박스를 형상화한 오네 로고가 포함된 새로운 대회 엠블럼은 오네 브랜드의 리더십과 혁신의 이미

지를 담았으며, 레이싱 트랙을 형상화한 그래픽 라인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DNA를 표현했다.

CJ대한통운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레이싱머신과 모터스포츠의 역동성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술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슈퍼레이스와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농어촌공,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

는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 대학교·대학교 봉사 동아리 등을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68개 봉사활동 단체에서 16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여 농촌지역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신하은 기자 godhe@